

지역화폐 '다يرو움' 지원

익산시, 월 최대 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يرو움' 지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디어로움의 개인별 인센티브 구매한도와 소비촉진지원금 지원한도를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지원 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증액된다.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디어로움 충전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10%와 결제 후 받게 되는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총 20%의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시의 지원 확대로 디어로움 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혜택과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디어로움 사용결재액 상위 30곳

은 충전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비촉진지원금 적립은 제외된다.

해당 업체는 시 홈페이지, 익산디어로움 앱(착한페이) 팝업창 행복복지센터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시는 디어로움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어로움은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총 누적 발행금액은 3157억원을 넘어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추진

질병 · 사고 · 실직 가정 생활안정 지원

군산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및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펼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자체 복지사업인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제도가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지원 등이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결과 총 3,440건에 대해 17억 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

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잇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공영주차장 브랜드 '이리대'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

익산시는 공영주차장 브랜드 '이리대'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공공디자인 분야 '한국공공디자인학회상장'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창의적 경관·디자인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로 국토·도시·경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구도심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국내 최초로 시간위 공영주차장 브랜드 '이리대'를 개발했으며 디자인·건축·교통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이뤄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단순히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위해 구도심의 공영주차장에 문화와 디자인, 안전의 가치를 부여했다.

시는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고 장



에인주차구역 개선 등 주차구획 확대, 보차분리, 차량동선 개선 등을 통해 잠재적 사고 위험을 낮췄다.

또 주차장의 전체 경계를 이루는 노후된 철재간판을 모두 제거하고 큐블러담장을 둘러쌓아 유여 공간을 주민 작품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경사로를 활용해 만든 소광장의 무대를 활용해 동아리 한마당, 버스킹,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에이스냉동(대표 박광철)이 '행복나눔 공유공간'에 냉장고를 기탁. 이웃사랑이 이어지며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공유공간 계속되는 기부행렬

군산 에이스냉동 행복나눔에 냉장고 기탁

에이스냉동(대표 박광철)이 '행복나눔 공유공간'에 냉장고를 기탁. 이웃사랑이 이어지며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15일 군산시 나운동에 따르면 에이스냉동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성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박광철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냉장고 안에 식품 공유를 통해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실천을 지

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정석 나운2동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유공간에 냉장고를 기탁해 주신 에이스냉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냉장고는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나눔을 통한 기부실천과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정착하는데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식품 및 생활용품 공유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나눔 프로젝트다.

/군산=고병만 기자

롯데물군산점, 취약 가정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군산시는 롯데물군산점(지점장 강정구) 사뜻데봉사단이 더운 여름 폭염에 취약한 아동과 가정을 위한 여름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뜻데봉사단은 이날 시 드림스타트에서 롯데물군산점 강정구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클레이터형 선풍기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한 물품은 선풍기 15대로 폭염 위기에 노출 위험이 있는 15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뜻데봉사단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밀반찬, 운동화, 여름?겨울 나기 지원 등 꾸준히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롯데물군산점 사뜻데봉사단에서 여름나기 물품 후원 선풍기 15대를 전달하고 있다.

지역 소식통

임피면 민·관 함께하는 이웃돌봄사업 펼쳐

민관이 함께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임피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임피면새마을협의회(회장 이희봉), 이장협의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상주마을 및 착한가게 3개소와 면사무소 직원들이 힘을 모아 민·관이 함께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2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된 장애인 세대(김*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실시하게 됐다.

새마을협의회와 3개 단체, 상주마을 주민들, 착한가게 3개소(더존디자인조명, 황토코리아 외 1개소) 및 면사무소 직원들은 뜻을 모아 실시했으며 후원금(40만원)을 마련해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하수도 설치를 진행했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대 일자리센터, 'NCS 필기 왕기초 문제풀이 교육'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공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비대면 화상시스템(ZOOM)을 통해 NCS 필기 왕기초 문제풀이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한 공기업 취업을 위해 채용트렌드 분석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준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3일간 주요 영역별 기술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취업 대비 스킬을 습득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준비하기 위해 ▲NCS 기반 공기업 취업준비 가이드 ▲NCS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전형 이해 ▲NCS 필기 기초 가이드 ▲직업기초능력평가 기술 문제풀이(지원관리,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등 공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